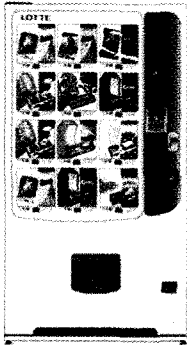


롯데기공, 아이스크림자판기 일본 첫 수출 국내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



(주)롯데기공(대표이사: 임중헌)이 아이스크림자판기를 개발하고 국내외적으로 사업을 펼친다. 롯데기공은 지난 6월 24일 일본 수출용 아이스크림자판기 20여대를 첫 출고시켰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일본 SANDEN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지난 5월 개발한 제품이다.

일본 수출은 일본 롯데제과에서 의뢰를 받아 주문생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첫 수출 후 6개월간 필드테스트를 통한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출 물량은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롯데기공의 아이스크림자판기 개발은 기존 음료자판기 중심의 라인업에서 탈피해, 일반식품자판기 분야로도 본격 진출을 알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판기에 냉동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냉동상품용 아이템을 접목할 수 있게 된다.

롯데기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아이스크림 자판기 개발로 인해 수출은 물론 국내 아이스크림 업체와 연계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을 개시한 아이스크림자판기는 아이스 상자, 봉지 등에 포장된 총 12종의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내용물은 최대 308개까지 적재가 가능한 대용량이다. 또 내부온도를 영하 23도에서 영하 30도로 유지하며, 언제든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이크로펜탄 발포제, 대체냉매, LED조명을 장착했다. 제품 외형은 999(W)x 1830(H)x797(D)mm이다.

롯데기공은 이번 출시한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뛰어난 성능을 구비한 만큼 국내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